**어떤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**

****

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께서

어떤 원주민 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에 감탄하여 말씀하신

내용입니다.

이 할머니는 문맹에다가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고

합니다.

그런 분이 어떻게 전도를 기가 막힐 정도로 잘 할 수 있었을까?

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은 이러했습니다.

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

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.

“선교사님,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?”

선교사님은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의 요구대로 성경을 찾아

빨간 줄을 그어주었습니다.

선교사님은 글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는 할머니인데

왜 그런 부탁을 할까 의아하기만 했습니다.

그날 이후부터 할머니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

할머니는 날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시간쯤에 동네 학교

정문 앞으로 나갔습니다.

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

“학생,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?”라며 말을 건넵니다.

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니 학생들은

거절 못하고 “뭘 도와드릴까요?”라며 다가옵니다.

“사실은 이 할미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눈이 잘 안보여서

볼 수가 있어야지. 그래서 말인데 여기 빨간 줄 쳐 놓은

부분만 좀 읽어주겠어?”

그러면 학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머니가 잘 들을 수

 있도록 또박또박 읽어줍니다.

“정말 고마우이. 그런데 학생은 방금 읽은 말이 무슨 뜻인지

알겠어?”

“잘 모르겠어요.”

“내가 가르쳐줄게.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

사랑하셨다는 거야.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

 없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야.

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함 받고

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된단다.”

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은 이러했던 것입니다.

할머니로 인해 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

 그 나라의 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

골0403. 그 위에,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기 위해, 하나님께서

우리에게 발설의 문을 열어주시도록, 우리를 위해 또한 기도하라,

그것을 위해 내가 또한 차꼬 가운데에 있느니라.

Tags

구원 전도 추수